



딸랑마막 종족이야기

2015년 당시 갓 대학을 졸업한 쓰리 선교사와 레피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딸랑마막 종족 사역이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동안 여러 SK 선교팀 선교사들의 헌신과 눈물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이 전해지고,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SK 선교팀의 로빈 선교사가 딸랑마막 종족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땅을 섬겼던 로빈 선교사가 작년 8월에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다시 그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이름은 니아(NIA)입니다. 니아 선교사는 간호학을 전공해서 풍토병과 여러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이 종족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딸랑마막 종족 교인들은 세례식이 있을 때마다 숲에서 나무를 베어와 스스로 교회를 짓고 단장했습니다.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위한 기존 교인들의 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세 번째 세례식을 위해 새로 지은 교회에서 16명이 세례를 받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연말에는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한 임직식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다른 종족

을 위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그들의 마음에 영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10년 전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쓰리와 레피 선교사처럼 또 다른 선교사들이 이 종족 안에서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재잘재잘거리는 아이들의 말을 귀기울여 들어보면 딸랑마막 종족어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인도네시아 표준어를 몰라 밀림 밖 다른 종족과 소통할 길이 막막했던 이들에게 학교는 세상 밖으로 걸어나갈 귀한 통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외진 이 곳에 들어와 학생들과 동거동락하며 함께 사역할 교사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 달에 딸랑마막 종족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청년 ‘에릭슨’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에릭슨 선생님은 먼따와이 종족으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될 듯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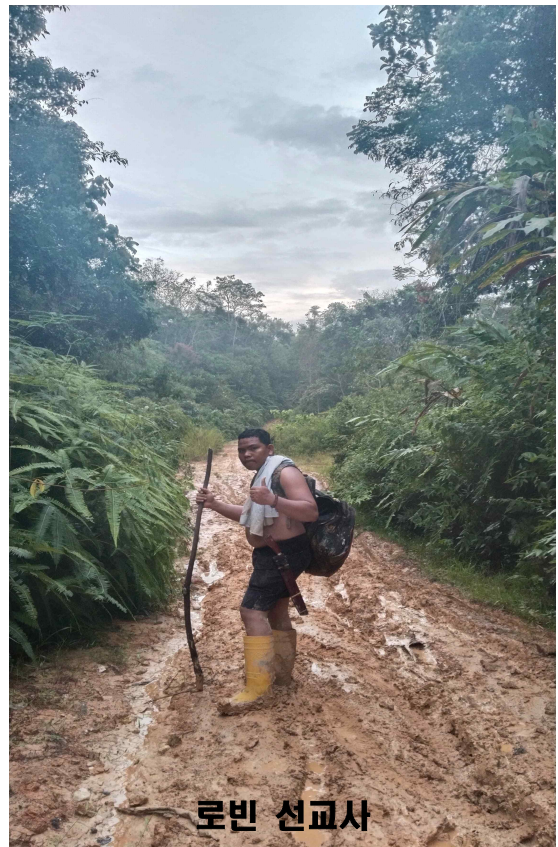
밀림 속 딸랑마막 종족에서는 중학교 교육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원하는 7명의 학생을 읍내로 데리고 나와 학사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교관을 렌트해서 함께 숙식하며 매일 새벽예배와 성경공부로 하루를 엽니다. 밀림에서만 살던 학생들이 좀 더 넓은 세계로 발을 딛고 자기 종족을 위한 일꾼들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시르**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희가 섬기고 있는 메단의 압디삽다 신학교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메단 SK 선교팀 선교관에 머물며 본부 선교사들을 통해 더 깊은 영적 훈련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 딸랑마막 종족 출신 최초의 목사로 다시 밀림 속 자신의 종족에게 돌아가 목회할 계획입니다.

디아나는 니아스 샬롬 신학교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 후 다시 자기 종족에 있는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종교교사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으로 세워 갈 예정입니다.

10년 전 작은 두 여선교사의 헌신이 한 종족 안에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언젠가 이 종족 안에서도 다른 종족을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로빈 선교사



순다종족 이야기

SK 선교팀의 프란스가 순다 종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순다 종족은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서부자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족으로, 전통 신앙과 혼합된 이슬람을 믿는 종족입니다. 프란스 선교사는 특별히 종골지역에 거주하는 순다 종족을 섬기기 위해 오늘 아침 그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순다 종족은 아낙달람 종족, 딸랑마막 종족, 만델링 종족, 라우제 종족, 부기스 종족, 파푸아 종족에 이어 SK 선교팀이 입양하고 사역하는 일곱 번째 종족이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와 언어 속으로 들어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란스 선교사의 매일이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보다는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예비하신 보물들을 하나 하나 찾아 누리는 매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종족을 사랑하고, 그 곳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삶을 드리는 이 길이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그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는 선교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스 선교사의 헌신을 통해 또 하나의 종족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편만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